

웹코리아 포럼



이재규
웹코리아 포럼 의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장

웹 기술 · 표준 발전현황

웹 기술은 1990년대 중반 웹브라우저의 개발보급과 함께 급성장하여, 글로벌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기관 내부의 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관간, 나아가 유비쿼터스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웹 2.0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웹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연구 및 활용되고 있는 웹 기술 분야는 크게 XML, 웹서비스, 시맨틱웹 등이며 이러한 기술들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웹서비스와 시맨틱웹 등의 기술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인프라 기술로서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 목적

웹코리아 포럼은 신속한 웹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사실 표준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 포럼의 활동에 대응하면서 적기에 효과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다.

웹 기술은 e비즈니스, 기업 정보화 등의 각 분야에서 기반으로 사용되는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텔레매틱스나 홈네트워크 등의 분야와 같이 별도의 산업군을 형성하기에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웹 기술은 기관이나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일상적으로 이미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비쿼터스 웹 기술로 발전하면서 홈네트워크나 텔레매틱스와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활용될 전망이다.

웹코리아 포럼은 향후 막대한 잠재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웹 분야의 정책, 표준, 기술, 응용을 연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첨단 정보들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웹코리아 포럼은 기술 · 표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러한 산출물들을 정부, 민간, 관련 기업 등 실수요와 연계하는 응용 연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웹 기술 자체의 발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응용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추진 전략

웹코리아 포럼은 정부와 산·학·연에 걸친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웹 관련 기술·표준·응용·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 연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산출물을 신속하게 산업화에 연계하고 국내·외 기술·표준의 활발한 유·출입(웹 관련 기술 및 표준의 국내·외 관련 단체 간의 입출력 창구 제공)을 통하여 발전하는 웹 기술의 국내·외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웹코리아 포럼은 이를 위하여 산·학·연·관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웹 관련 기술·표준·응용·정책에 관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연 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기적인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웹코리아 포럼은 분과별로 기술과 표준, 응용,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본 포럼은 현실적인 표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실표준 중심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웹 관련 벤더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표준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표준들은 공공 등 실 적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정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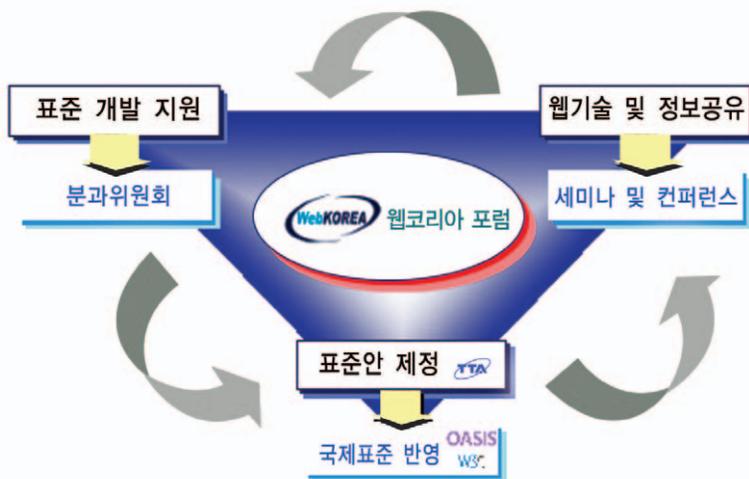
신표준이나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국내외적으로 웹 관련 표준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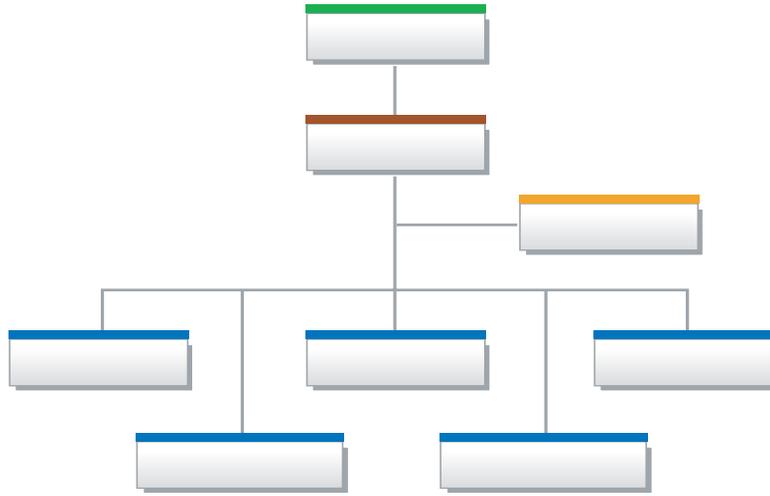
웹코리아 포럼 구성

웹코리아 포럼은 총회와 그 산하에 포럼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주체인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포럼에는 시맨틱 웹 분과, 웹서비스 분과, 전자정부 분과, 웹 보안 분과, 웹 기반기술 분과 등 총 5개의 분과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시맨틱 웹 분과는 웹 온톨로지 언어, 시맨틱 웹 서비스, 시맨틱 웹 레지스트리, 분산 시맨틱 웹 및 웹 서비스, XRML 등의 범위와 관련된 최신 표준 동향을 연구 조사하고 발전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시맨틱 웹 관련 신규 표준들을 제안하는 선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웹서비스 분과는 웹 서비스 관련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정부와 산·학·연에 걸친 통합적인 정보교환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웹 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웹서비스 분과는 W3C와 OASIS 등 국제 표준화 기구의





관련 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보급하며, 국내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함께 함으로써 웹 서비스 분야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에 웹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및 표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정부 분과는 전자정부에 웹 서비스 기술의 도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도록 수행되기 위하여 전자정부로부터의 웹 기술표준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립, 관련 표준(지침) 개발,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 분과는 전자정부에 적용이 필요한 기술 및 표준들을 내부에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연구개발하거나, 타 분과에 요청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웹 기반기술 분과에서는 XML 등 웹서비스 기반기술과 표준들을 연구하면서 이의 응용 정책 등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웹 보안 분과는 웹의 적용범위가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 이슈들을 연구하고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 서비스 융복합에 따라 발생하는 이질적인 보안 환경에 대한 연계통합 방안 등 웹 기술이 실무적인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적인 해결방안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웹 보안 분과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인 표준과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웹 기반 기술 분과는 XML 등 웹 서비스

기반 기술과 표준들을 연구하면서 이의 응용 정책 등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결론

웹코리아 포럼은 산하의 5개 분과를 통해 국내 웹기술·표준·응용·정책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국내 웹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지원, 웹서비스 응용 표준안 개발, 웹서비스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차세대 웹인 시맨틱웹 등에 대한 선행 연구와 성과의 공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웹코리아 포럼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웹 적용 분야들을 지원하고 관련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은 OASIS, W3C 등 국제표준화 기구를 통하여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글로벌한 웹 기술·표준 선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TTA**